

# ‘적’이 된 ‘어제의 동지’들

## 주말 3연전 KT



조범현 감독



이대형

조범현 감독·김상현·이대형 친정팀과 일전 준비

옛 동료끼리 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만난다. KIA 타이거즈가 3일부터 KT 위즈파크에서 ‘막내’ kt 위즈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인연 많은 이들의 맞대결이다.

밖에서는 반가운 옛 동료지만 그라운드에서는 매섭게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친정팀’과의 승부. 2009년 타이거즈 사령탑으로 V10을 지휘했던 조범현 감독이 kt 유니폼을 입고 옛 제자들을 맞는다.

2009년 V10 영광의 추억이었던 외야수 김상현도 SK를 거쳐 kt에 새 동지를 들고 친정팀과의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겨울 논란의 이름이 됐던 이대형에게도 각오가 남다를 승부다. FA(자유계약)를 고향에 돌아와 새 출발을 했던 이대형은 20인의 특별지명으로 1년 만에 집을 썼다.

타이거즈 이름으로 화려한 한 때를 보냈던 세 사람은 막내팀의 주축 인물로 자리를 하고 있다. 승리가 간절한 이들이지만 KIA에게도 질 수 없는 필사적인 승부다.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막내팀과의 경기인데다 다음 주 NC, 삼성 두 강팀과의 승부에 앞서 초반 분위기를 잘 이어가야

## KIA 자존심 격돌



양현중



허버

원투펀치 양현중·허버 앞세워 주말 연승 사냥

하기 때문이다.

KIA는 양현중과 허버 원투펀치를 앞세워 승리 사냥에 나선다. 양현중이 3일 선발로 출격하고 4일 경기는 허버가 책임질 예정이다.

두 선수는 지난 주말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와의 개막 2연전에 출격해 각각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의 피칭을 선보였지만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다. 둘 다 퀄리티스타트를 끊기는 했지만 부상 등의 여파로 실전이 부족했던 만큼 완벽하게 풀이 풀리지 않은 모습이었다. 원투펀치로 어깨가 무거운 양현중과 허버는 이번 등판을 통해서 마운드에서의 매서움을 더해야 한다.

양현중에게는 특별한 스승을 상대로 한 승부이기도 하다. 조범현 감독 시절 ‘막내 딸’이라는 애칭과 함께 좌중우돌 성장한 양현중은 어느새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 당당히 옛 스승을 찾는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이들의 만남이 주말 3연전을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불붙은 ‘강’

시범경기 3연속 안타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가 3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이어갔다.

강정호는 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시라소터의 에드 스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출전, 3타수 2삼진 1안타를 기록했다.

강정호의 시범경기 타율은 0.179에서 0.190(42타수 8안타)으로 상승했다. 직전 두 경기에서 각각 2점 홈런, 1타점 2루타를 터트리며 장타력을 뽐냈던 강정호는 이날 좌전 안타를 치며 타격감을 유지했다.

처음 두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침묵했지만 7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전 안타를 치며 침묵을 깼다. 강정호의 타구는 볼티모어 3루수 매니 마차도의 글러브를 맞고 굴절돼 나가면서 안타가 됐다.

수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 트리뷴-리뷰는 강정호의 수비를 ‘인상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강정호는 7회말 수비 때 교체될 때까지 5차례 땅볼 타구를 처리했다. 피츠버그 트리뷴-리뷰가 주목한 건 2회말 2사 후 조너선 스콧을 땅볼 아웃으로 잡아낸 장면이다.

강정호는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가를 범한 타구를 역동적으로 잡고 나서 뛰어올랐다. 몸은 3루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허리를 돌려 1루쪽으로 송구했고, 공은 원바운드를 후 1루수 페드로 알바레스 미트에 들어갔다. 쿼드 전례 질주했지만 공이 더 빨랐다.

피츠버그 트리뷴-리뷰는 “강정호가 스콧의 깊을 타구를 잡아, 높이 날아 정확한 송구를 했다. 스콧이 반발 정도 늦었다”고 묘사했다. 강정호가 넓은 수비 범위와 강한 어깨를 과시한 장면이었다. /연합뉴스



발레 슛? 미국프로농구 보스턴 셀틱스의 재 크라우더(가운데)가 1일(현지시간) 보스턴 TD가든에서 열린 인디애나 페이스서와의 경기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타이거, 마스터스 출전할까

우즈 침체에 시청률 등 흥행 저조 우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를 8일 앞두고 타이거 우즈(미국)의 출전 여부가 조미의 관심사다.

우즈의 전용기가 오거스타 공항에서 목격됐다는 니, 몰래 훈련을 시작했다느니 우즈의 출전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가 쏟아졌다. 이런 관심은 PGA 투어가 직면한 스타 기근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우즈가 몰락의 길에 접어들면서 PGA 투어는 ‘호랑이 없는 토끼굴’이 되고 있다.

2014-2015 PGA 투어 우승자 가운데 버바 왓슨, 조던 스피스, 지미 워커 등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들이 포진했지만 최정상급 스타 선수라고 하기엔 미흡한 느낌이다.

우즈의 세계랭킹은 고차 104위지만 우즈가 출전하는 대회와 출전하지 않는 대회는 TV 시청률부터 당장 큰 차이가 난다.

PGA 투어의 고민은 우즈의 존재를 대체할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우즈 만큼 압도적인 경기

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드라마틱한 승부를 펼치는 ‘주연 배우’가 PGA 투어에는 없다.

게다가 우즈의 후계자로 지목받는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세계랭킹 6위 애덤 스콧(호주)은 올해 성적이 신통치 않다. 그리고 세계랭킹 2위 헨릭 스텐손(스웨덴), 랭킹 5위 제이슨 데이(호주), 랭킹 8위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등 세계랭킹 10위 내 5명이 유럽 투어를 겸해 PGA 투어 간판 선수로는 한계가 있다.

PGA 투어에 전념하는 선수 가운데 폭발적인 장타와 파스한 인간성 ‘스토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왓슨(3위)은 경기력이 너무 들쭉날쭉한 게 흠이다.

우즈의 스타 파워를 입고 호황을 누리던 PGA 투어는 예상보다 빠른 우즈의 몰락과 이를 대신할 스타 부재라는 악재에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